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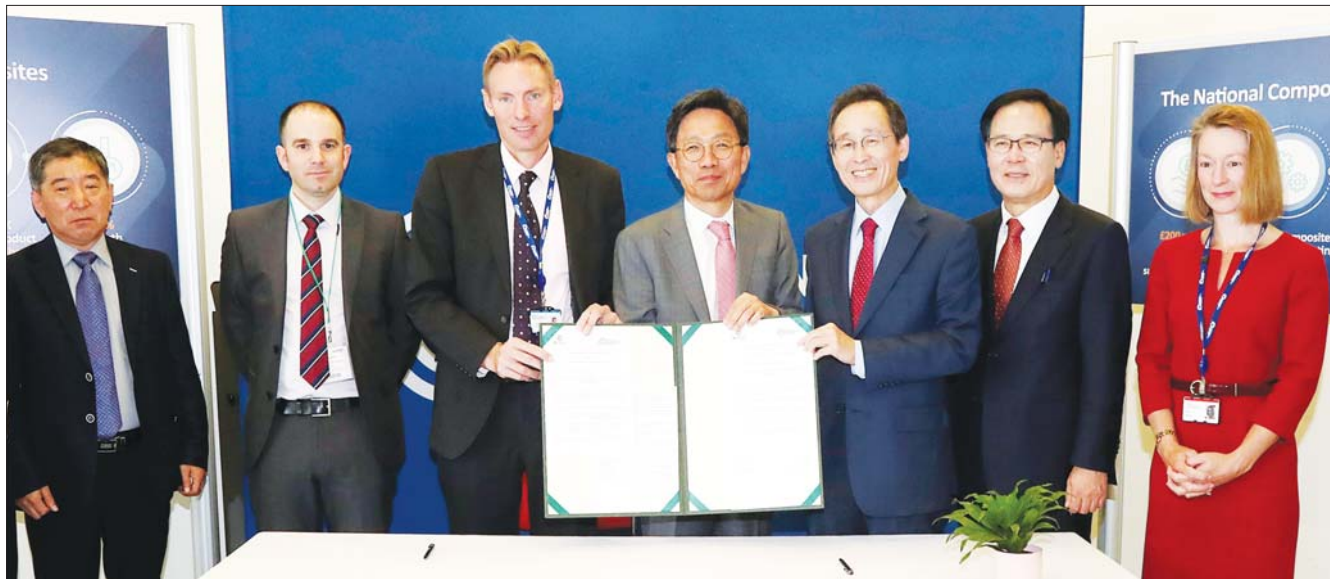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점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음 9월 4일)

제23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영국을 방문중인 송하진 전북도지사 및 방문단은 30일(현지시간) 브리스틀에 위치한 영국내 60개 대학, 725개 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탄소복합재 상용화에 필수적인 복합재 설계 기술을 갖춘 영국 국립복합소재연구소(NCC)를 방문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의 기술개발 협력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탄소산업 수도 도약 발걸음 '분주'

송하진 도지사, 탄소융합기술원-영국 국립재료센터 협약 이끌어 탄소·복합재료 공동 연구, 기술개발 협력 프로젝트 추진키로

영국을 방문 중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영국 글로벌 선진 연구기관의 협약식에 참가해 탄소소재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는 등 전북의 탄소산업 수도 도약을 위한 분주한 행보에 나섰다.
영국 방문 마지막날인 30일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에 위치한 국내 유일 탄소 복합재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영국 국립복합소재연구소(NCC)와 업무협약식에 참가했다.
영국 국립복합소재연구소는 탄소복합재 상용화에 필수적인 복합재 설계,

자동화공정 및 성형기술을 기반으로 항공기, 자동차, 소재 등 관련 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글로벌 선진 연구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탄소 등 복합재료 연구 기술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을 골자로 탄소 및 복합재료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기술개발 협력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공동구상 제안, 공동연구 연구원 교환 및 컨설팅(자문), 정보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을 대표하는 탄소산업 연구기

관이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는 물론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탄소소재 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NCC는 세계 60개 대학, 725개 기업과의 기술자료를 보유하는 등 산학연 네트워크에 강점이 있는 연구기관만큼 전북도 소재 탄소기업과 연계해 향후 탄소 복합재 실용화를 위한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으로 탄소소재산업에서 전북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술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융합기술원이 전문기관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연구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 중인 전북도도 탄소소재산업 발전의 중심 지역으로서 역할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영국 중앙정부 국제무역부 대표이자 해당 지역 지방의원인 파예 스미스 박사(Dr. Faye Smith), 서부잉글랜드지치단체연합 사무국장 격인 스테판 배쉬포드(Stephan Bashford) 등 10여 명이 참석해 양 기관은 물론 지역 간 기술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 /김진성 기자

여의동 시대 개막... 전주시, 행정운영동 설치 조례 시행

일제잔재인 전주시 동산동의 명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여의동 시대가 열렸다.
전주시는 '동산동' 행정동 명칭을 '여의동'으로 변경하는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등 관련 조례가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기업 총수의 호인 '동산(東山)'을 사용한 동산농사주식회사에서 유래한 일제잔재인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바꿨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 구현을

위해 시민공모와 주민투표, 명칭제정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명칭을 '여의동'으로 결정했으며, 명칭변경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전주시의회에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등 관련 조례를 변경하는 조례안을 상정·통과했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선정된 새로운 명칭인 '여의동'은 '뜻을 이뤄 주고 용(龍)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한다'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대에 덕룡·구룡·발음·용암·용정 등 유난히 용과 관련된 마을이 많아 주민들이 친숙하고 부르기 쉬운 명칭인 점이 고려돼 지어졌다. /송효철 기자

개천절 관계로 3일자 신문 쉽니다.

도내 최대 가야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 되다

장수 동촌리 고분군, 가야세력 존재 증거 충분 4일 사적 지정 기념 행사·가야홍보관 개관식

전북도는 10월 1일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52호)가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9면)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군 장수를 마봉산(해발 723.9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를 따라 분포하는 83개의 무덤이다. 연구자들은 이 고분군이 5세기 초~6세기 초 무렵 가야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전북 지역 가야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출토된 유물도 편자, 재갈, 등근고리 지루갈, 은제 귀걸이, 휴대용 화살통 등 가야계 수장품의 고분에서 확인되는 종류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양상에 따라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지역 가야계 수장품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동촌리 고분군의 가야계 구덩식 돌덧널무덤(수혈식 석곽묘, 竪穴式 石槨墓)에서는 가야계 토기와 백제계 토기가 함께 발견됨으로써 동촌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장수군은 동촌리 고분군이 장수군 최초로 사적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4일 오전 10시 10분 장수군 한누리전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재청장, 전북도지사,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며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사적 지정에 큰 힘을 보태준 장수 가야 자립기를 비롯한 장수군민에게 고마움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념행사와 함께 전북에서 최초로 건립된 가야홍보관 개관식도 진행됐다.
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 지역에 가야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유적이며 동촌리 고분군의 사적지정으로 전북 지역 가야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으로 2018년부터 진행된 장수지역 유적정비 사업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장수 백화산고분군(장수 삼봉리·호덕리 고분군)과 침령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장수가 및 역사 홍보 및 관광 편의 제공을 위해 장수역사문화전시관 건립, 동촌리 고분군 주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동촌리 고분군 발굴현장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